

대원정사 대작불사
 대원불교 조계종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 (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국내 첫 소조부도 출토 영동 영국사 발굴조사

국내 처음으로 소조부도(흙으로 빚은 부도)가 출토됐다. 충북 영동군 영국사 발굴조사팀이 실시한 총천년대 박물관 조사단(단장 장준식)은 12월 1일 기단과 탑신, 상륜부를 갖춘 팔각원당형의 전형적인 국내 부도형태를 갖춘 높이 13cm의 소조부도를 공개했다. 조사단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토된 유물로, 조사(祖師) 숭배라는 사상적 측면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오유진 기자



사찰재정 쓸때 '깨끗' 감사때 '땃땃'

불광사, 공인회계사에 감사 자청... 결과 공개 내년부터 산하기관에도 확대, "신선한 충격"

사찰재정공개는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는 불교계의 화두다. 신도 1만명 이상의 대형사찰인 서울 불광사가 회계감사를 자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석촌동 불광사(주지 지정)는 최근 외부 공인회계사에게 1999년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사찰재정 감사를 받았다. 12월 중순

신도들에게 공개할 방침. 불광사의 이러한 행보는 지금까지 감사의 의무가 없어 재정 투명성 확보의 난제를 안고 있던 종교계 전체에 파급효과를 것으로 전망된다.

불광사 감사 결과 전문가가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사소한 실수와 혼동, 절차상의 미비 등이 지적됐지만, 부당한 지출이나 재정 누수 등 부조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장치 및 현금 취급직원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상호 견제장치, 고액 지출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한 입찰제도 실시 등 회계시스템과 관련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

불광사는 이번 회계감사를 시작으로 월간 불광, 불광출판사, 불광

유치원 등의 산하기관까지 회계 감사를 확대한 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감사결과를 신도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할 예정이다.

불광사 재정 감사를 실시한 회계사 정명철 씨는 "YMCA의 국고지원금 횡령사건, 꽃동네의 파문 등 최근 종교계의 불투명한 재정 운용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불광사의 결단은 종교계의 전반적인 쇄신과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가톨릭, 개신교 등 타종교에도 외부회계감사의 제도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태고종 종정 덕암 스님 원적

11월 26일 봉원사에서 종단장 봉행



태고종 제16세 종정 덕암당(德菴堂) 홍덕(興德) 대종사가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경 주석처였던 서울 사간동 법륜사에서 원적했다. 법랍 73세, 세

수 90세. 1913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난 덕암 스님은 30년 금강산 유림사에서 석산 화상을 은사로 득도했다.

70년 태고종을 창종, 총무원장, 제13세 종정,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한국 불교의 법통과 정통성을 지키는 데 헌신했다.

덕암 스님의 영결식은 11월 26일 서울 봉원사에서 태고종단장으로 봉행했으며, 가비식은 1만여 대종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엄수됐다. **관전기사 3번**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도롱뇻 재판 "현장검증 필요"

26일 2차 공판, 원고적격 판단도 미뤄

'도롱뇻 소송'이 원고 적격 여부 판결이 유보된 채 12월 26일 오전 11시 울산지법 111호 법정에서 2차 공판이 열렸다.

울산지법 민사 10부(재판장 윤인태 부장판사)는 11월 28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도롱뇻과 '도롱뇻의 친구들'이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12월 15일 내일사를 출발, 화압법, 미타임을 거치는 현장검증을 통한 조사와 보존자료 제출을 거쳐 26일 11시 2차 심리를 속행한다"고 밝혔다.

도롱뇻의 원고적격 여부에 대해

서는 "12월 26일까지 원고 당사자인 도롱뇻에 대한 보존자료 및 소송인단 20만 명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며 판단을 미뤘다.

한편 같은 날 서울 걸스카우트회관 대강당에선 녹색연합·천성산전국비상대책위·환경소송센터 주최로 '자연의 권리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일본판 '도롱뇻 소송'인 '우는 토끼' 담당 변호사였던 후지와라 타케지(藤原猛爾, 일본환경법률가연맹 대표)는 "자연환경, 자연환경권 실현 △자연보호에 관한 정보공개 △객관소송제도 △수속 도입 등을 환경소송의 의무적 과제로 지적했다."

천미희 · 남동우 기자



'내복을 입읍시다' 불교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존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천주교 환경연대 등 종교단체들이 11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갖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내복입기운동에 전국민이 동참해 줄것을 호소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 통해..."

조계종 총무원, '승적복원 조치' 유보 성명

조계종 대변인 현고 스님(기확실장)은 11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규위원회의 98년 멸빈자에 대한 심사 개시 결정에도 불구하고 종헌 개정 등을 통해 사면을 실시하지는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키로 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승적 정정의 행정조치를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고 스님은 또 "대상자는 사면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무원은 11월 27일 정우 스님 등 98년 멸빈자 4명의 승적을 복원 결정하고 재심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종헌 개정 없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일부 종회원들의 반발에 따라 종헌 개정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중앙종회의원 15명은 총무원성명에 대해 즉각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한명우 기자 mhwan@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한층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호남: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경남: (055)353-1196 경북: (055)547-3469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11월 25일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원) 강당. 한 비구니스님이 2백여 명의 노인들 앞에서 열강을 하고 있다. 노인들도 강의가 무척이나 재미난 듯 눈을 떼지 못한다. 서광 스님(미국 보스턴 서운사 주지)의 이날 강의 주제는 다름

아닌 '연애'다. 스님의 강의는 연애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으로 시작됐다. "스님, 사랑을 해 봤습니까?" "사랑과 연애는 어떻게 다른가요?" "노인들의

요' 사랑과는 전혀 거리가 먼 비구니스님이라고만 여기던 노인들도 스님의 강의에 점점 빠져들어 갔다. 스님은 '유희'로 강의를 갈무리했다. "우리가 사랑을 통해 좋은

리를 알고 있는 사회에 조금이라도 슬픔을 피워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스님의 강의에는 더 큰 의미가 부여된다. 바로 종교 사회 복지에 있어 막동이었던 불교복지가 노인문제를 심도 있게 파고들어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구니스님의 연애특강

성(性)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님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질문을 풀어나갔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음이 통하여 생기는 것이지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다음 생애의 더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날 스님 강의에 나선 것은 다양해지고 있는 노인문제에 골머

리 1시간 남짓 진행된 스님의 강의에 귀를 쫓고 세우고 들던 노인들. 삶과 사랑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은 듯 오랜만에 이마의 주름이 펴지고 입에는 미소가 번졌다. 이동혁(취재1부 기자)

신행체험수기 공모 마감 임박

교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9번째를 맞습니다. 가슴속에만 폭풍 담아두었던 강도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귀중한 체험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큰 지피가 될 것입니다. 이번부터는 신행수기 당선자들의 모임인 신수회 회장님이 신설배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당선작 발표: 2004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ihnews@buddhapia.com
- 접수 마감: 12월 13일

200자 원고지 30매... 12월 13일까지

- 시상내역
 - 대상(유마상)
 - 우수상(반사 사장상)
 -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 △천태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 △총화종 총무원장상
 - △대원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 △신수회장상
- ※응모도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연락처를 팔회 기재해 주십시오)

현대불교신문사

화제의 염주

성물에도 최고!
선물에도 최고!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해골뿔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점진 후 사용하야 합니다.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 됩니다.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 새로운 시안을 계획하고 계신분
-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 구직을 원하시는 분
-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 선거 출마 준비중이신 분
-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분
- ◆ 결혼배탈을 찾고 계신분
-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 12단지 108염주 1set 가격 195,000원

※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 **현금이 들어간 12단주를 개척이였으니 기도 갚아주시는 스님 및 불님께 푸른 면에 입니다.**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원 B/D 406호